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2016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환경부, 문화부, 평화부, 예배부도 새로운 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한별 씨와 김한솔 씨가 결혼합니다. 결혼예식은 30일(토) 12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미국(시카고, 엘에이)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옵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차를 가지고 오실 때는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늦지 않게 오시고, 앞을 때는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 주세요.
 회중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송영 이후에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봉사는 해당 연령대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1부	렘 1:4-10 / 시 71:1-6	2부	
예배	고전 13:1-13 / 눅 4:21-30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정영선 홍춘숙 김애순 김경혜 안현숙 배삼순 김정훈 곽상준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윤형석 이선화 차혜심 홍성식 박석희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41-4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40세 이하)
 커피 판매 봉사 : 4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삼의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주현 후 제3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14. 주 우리 하나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갑작스레 찾아온 강추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리의 노숙인들과 난방이 어려운 빈민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난폭해지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자신의 피붙이마저도 아끼지 않는 냉혹한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일그러지고 빼뺏어진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바르고 선한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호10:12 인도자
- ♣ 교 독 문 123. 주현절(3)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대표기도 하현철 장로
 응답 송 찬양대
 찬 양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 함께
- ♣ 성경봉독 I. 느8:1-6 고전12:12-31a 눅4:14-21 배동준 선생
 II. 사 45:4-8 한성건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여호수아의 고백 찬양대
- 말 씬 I. 신진식전도사
 II. 공의가 움돋는 땅 김기석 목 사
-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해경 국지연 권미숙 권혁순 박혜경 김경해 김기석 김희우 김성순
 김영호 김용태 박정숙 김정민 이해령 김중현 성귀옥 김지윤 정영우 김철수원
 유영남 김해선 김혜진 박기영 박석희 조항미 박정윤 성지현 윤정득 윤주원
 최윤선 이광섭 김수연 이부곤 이상준 이유희 이한림 김명희 이현순 임선양
 신현숙 주은경 지영자 최다미 최 철 수 최철수 광권희 한규숙 한상경 허명선
 현 진 홍성식 이유리

감사헌금

강금분 김미향 김영란 김종락 박영신 김해선 박재영 이현정 박창운 허정운
 이범석 류정옥 이정훈 류하나 정현숙 한주은 홍성식 이유리 무명12

생일감사헌금

박시내 이우원 옥귀희 최명은 최진성 허호범

녹색꿈헌금

김재환 김진선 김향자 신다현 이채린 임설희 장의림 정수복 장미란 조경환
 최세현 허진영 홍순구 안홍숙 무명3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쉽	청 파1속	김재흥	쉽
안 디 옥	최경미		청 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청 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청 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청 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청 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권희		청 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청 파8속	이범석	
나 사 렛	김경혜		청 파9속	김인걸	
			청 파10속	장영숙	

틈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는
한겨울에 뿌리를 얼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위에 틈을 낸다고 한다
바위도 물을 받아주거나
살을 파고드는 아픔을 견디며
몸을 내주었던 것이다
치열한 삶이다
아름다운 생이다

나는 지난겨울 한 무리의 철거민들이
용산에 언 뿌리를 내리려다가
불에 타 죽는 걸 보았다
바위도 나무에게 틈을 내주는데
사람은 사람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다

- 이상국

※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7주기였습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541. 꽃이 피는 봄날에만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불의와 죽음의 기운 가득한 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공의가 움트고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뒤를 따릅시다.	
다함께:	아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불의의 땅에 공의가 움돋는 모습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이 넘쳐나는 꿈을 꾸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임창국 선생
	2부 이범석 목사	한완식 장로	박기영 집사

1월	영접위원	한완식 임주빈 김정주 최현옥 고숙이 김정미 최은미
	헌금위원	박홍재 정영선

믿음으로 읽는 글

양심적인 사람

...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을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양심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간 학일 뿐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사회를 아울러 포용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강의를 끝나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은 관계를 조직하는 장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일생에 들어가 있는 시대의 양량을 준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이처럼 인간과 세계를 아우르는 최고 형태의 관계론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또한 가장 연약한 심정에 뿌리 내리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품성이기도 합니다. ...

60년대의 학생운동 특히 이념 서클은 일부 대학의 일부 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참여하는 사람도 소수였습니다. 당연히 사람 찾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대체로 진보적인 사상과 사명감을 가장 높이 평가했고, 조직력과 실천적 역량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사람은 단연 꽃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던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문득 문득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20년 후에 다시 세상에 나와서 자연히 수소문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은 그 길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도 정치권에 진입한 사람도 있고, CEO가 된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치열했던 모습들이 아득한 비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학생운동이란 그런 것인가 하는 회의마저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꾸준히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념이나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친

구들의 권유를 외면한다면 두고두고 양심의 가책으로 남을 것 같아서 참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였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시처럼 바람보다 먼저 눕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이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낮습니다. 낮을 뿐 아니라 부정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이며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식인이란 모름지기 양심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역량은 차라리 부차적인 것이라 해야 합니다.

...

떨리는 지남철의 전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 신영복, 「담론」 (돌베개) 중에서

• ‘지식인’의 자리에 ‘신앙인’을 넣어 읽어도 좋겠습니다.